

제 31 호

예수 성심 대축일
(교황주일)

1973. 7. 1

순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한국 주교단 사목 교서】

국법(國法)과 양심(良心)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인 동시에 국경의 제한을 받는 대한 민국의 충실한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히 순종해야 하는 동시에,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모든 국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바탕을 둔 크리스찬 양심과 국법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다면 국법에 규정된 처벌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는 크리스찬 양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양심이 국법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양심은 잦은 범죄로 타락할 수 있는 사실도 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날로 더욱 올바르게 형성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계속되는 한, 양심과 국법이 대립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자들은 마땅히 양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 제정 공포된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한편으로 크리스찬 양심을 타락시킬까 염려되고, 또 한편으로는 크리스찬 양심과 직접 대립되는 국민의 의무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불행한 결과 때문에 한국 주교단은 여러 차례에 걸쳐 모자보건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자보건법은 이 두가지 독소를 내포한 채 제정 공포되어 시행에 접어들었습니다.

첫째 독소는 인공 임신중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무제한 확대한 점이고, 둘째 독소는 일정한 경우에 불임수술을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인공 임신중절은 살인 행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현대인은 드디어 인공 임신중절의 풍조를 조성하고 말았습니다. 형법으로 낙태를 금하던 많은 국가들이 마비된 현대인의 양심을 바탕으로 낙태행위를 합법화 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최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아무런 저항능력도 갖추지 못한 태아의 생명을 제거해도 좋다는 법을 제정하였으니,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판단하던 선의의 국민이 양심을 잃게 되고, 생명 천시의 사회 풍조가 형성되면 크리스찬 양심마저 마비되고 말 것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비록 국법이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해도, 또 남들이 태아의 생명을 마구 죽

여버리더라도, 우리 신자들만은 생명의 존엄성만을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적인 임신중절은 살인 행위임을 깨달아 피함으로써, 타락한 오늘의 사회 풍조를 정화하며, 우리 국가와 민족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겠습니다.

불임수술도 교회는 금합니다

모자보건법은 또한 일정한 경우에 보사부 장관이 불임수술을 명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를 발견한 의사는 지방 장관을 통하여 보사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이란 견지에서 이 법은 크리스찬 양심에 직접 대립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주교단은 지난 2월 18일자 사목교서 「모자보건법의 독소를 고발한다」에서 양심에 직접 대립되는 국법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주교단은 또한 이 독소의 시정을 대통령과 보사부장관에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국법과 신앙의 직접 대결을 피하려는 배려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반영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즉 불임수술의 의무조항 시행 절차를 규정하면서도 아무런 벌칙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달리 말해서 불임수술의 의무를 거절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과 국법의 직접 대립이 해소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크리스찬 윤리에 충실하기 위하여 불임수술의 의무를 거절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현대 세제안에서 만년을 무릅쓰고 크리스찬 신앙과 윤리에 충실한 생활을 영위하며, 이 국가와 민족의 건전한 장래를 희망하면서, 정치인들이 건전한 양심에 바탕을 두고 입법 활동을 통하여 온갖 독소를 제거하고 마침내 국법과 건전한 양심이 일치할 수 있는 이상을 실현시키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자보건법의 결과로 무수한 태아의 생명을 끊어버리게 될 모든 공범자들의 죄를 속죄하는 뜻으로 이번 성년을 더욱 거룩하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6.25의 민족적 비극을 회상하면서 이 교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무수한 국민용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희생하였거늘, 오늘의 사회풍조는 스스로의 명예와 안일을 위하여 무죄한 태아의 생명을 멋대로 죽여버리는 참상을 빚고 있습니다. 실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신앙과 양심에 충실한 모든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풍부한 은총을 비는 바입니다.

1973. 6. 25.

한국 주교단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 그 마음 생각은 영원하시니,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제 그들을 살게 하시도다.

□제1독서 (오세아서 11; 1, 3-4, 8-9)

내 마음이 흔들린다.

□충계송 ○너희는 기꺼이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외쳐 부르라. 백성들에게 그 큰 행적들을 알리며, 그 이름의 높으심을 전하라. ◎

□제2독서 (에페소서 3; 8-12, 14-18, 성서 P. 440)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바란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죄의 속죄물로 당신 아들을 보내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19; 31-37, 성서 P. 257)

열 구리를 찢었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신자들의 기도

1. 지극히 어진신 구세주 예수여, 주의 제단 앞에 겸손되어 꿇어 경배하오니,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우리는 이미 주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께 속하여 있기를 바라나이다. 주께 더욱 완전히 결합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오늘, 주의 성심께 정성되이 봉헌하오니 받아 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생명의 원천이신 주여, 우리사회에 만연된 태아 살해의 풍조를 하루 속히 없앨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사,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3.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여,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돌보시는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들 모두가 육신 생명에 요긴한것을 얻고, 오묘한 마음과 성실한 뜻으로 주의 명을따라 열심히 선행에 힘쓰게 하소서◎

■맺음기도 (교황을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의 목자이시요 임금이신 천주여, 친히 주의 일꾼 바오로를 성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차로 이 굽어보시어, 그로 하여금 말과 모범으로 신도들을 보살피다가, 마침내 맡겨진 양무리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의 강물같이 흘러나오리라.



어떤 편지

선유도에서 6개월여를 산 적이 있다. 군산에서 배를 타면 서너시간 걸리는 곳이다. 섬생활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 가운데, 한 주간에 두번 들어오는 정기 여객선을 기다리는 재미가 하나 있다. 배를 타고 편지와 신문이 오기 때문이다. 반가운 사람도 오고, 사실,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처럼 편지받는 즐거움이 또 없다.

더더욱 재미(?)있는 일은 섬을 찾겠다는 손님이 띄운 편지가 손님보다 더 늦는 수가 가끔 있다. 날씨때문에 배가 제날에 찾아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지가 제 시간에 대어 오지 못할 때 실소(失笑)를 자아내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 비슷한 일이 최근에 있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던 김 진소 신부님께서 그간 부산에서 정양하고 계시다가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수정이 편집시간과 타이밍이 맞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대로 전문을 소개해 본다.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다는 말 그것 뿐입니다. 저의 사고에 깊은 심려(心慮)와 기도를 해주신 형제들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저의 건강은 형제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신 하느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의 몸은 형제들이 안타깝게 벌여 세운 탐석(石)이요 언손으로 호호 불어 키워낸 과육(果肉)이요, 신음하며 일으킨 소생이라고 압니다.

보담은 건강한 모습으로 미련하나마 <성실> 하나만 무기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번 죽은 목숨, 여분으로 사는 자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신도 기억력도 차츰 맑아집니다. 수면도 제 몫을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 부산 (동래 성 베네딕도 수도원 피정의 집-편집자 주)에는 28일경(6월 28일-편집자 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와 방문으로, 불심양면을 아끼시지 않으신 교형들께 숲정이를 통해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뵈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한 세상을 두번 살고 있다고 여기시는 젊은 신부님의 비장한 마음가짐에 그냥 숙연해질 뿐이다. 신부님의 그 뜻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두들 힘껏 도와야겠다. 멋드러지게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는 사람이 없다면야.....

(잡)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

에어콘 냉방 시설 완비

미미 제과소

전화 ② 6589

(미미사장 ② 3915 번)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옆)

김민주 (가타리나)

왕자표연탄

전화 : ③5287 ② 6504

교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운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수옥(분도)

* 대화의 광장

* 잔디밭



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六·二五사변)

김 영 구 신부

저기 하늘이 펼쳐져 끝나는 북녘에도
우리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핏줄기가 있습니다.
누가 남의 허리를 묶어 놓았습니까?
누가 남의 혈맥을 끊어 놓았습니까?
오늘도 모진 하루를 울며 여이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북쪽 하늘 바라보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습니다.
저 물 맑은 동해의 파도가 손짓하며 부르고, 금강산,
동릉굴, 평양, 삼수, 갑산의 땅이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 묵념아 울기만 합니다. 어이
한 일입니까?
백두 영봉에 정기를 타고 태어난 우리 압록, 두만강
물을 마시고 뼈가 굵은 이름이 오늘은 쳐다보지 못할 하
늘만 우러러 눈물 지웁니다. 언제나 통일(統一)의 날이
옵니까?
겨울이 가고, 봄도 가고, 신록(新綠)이 우거진 여름은
다시 오는데 이 땅에는 왜 통일이 안옵니까?
우리는 왜 돌아가지 못합니까? 이 강토는 하나이어야
살고, 이 겨레는 한몸치가 되어야 사는 민족입니다. 나
누어 살 수 없는 터전입니다. 그런데, 저기 아아 저기 저

무슨 장벽입니까? 저 무슨 절벽입니까? 이것을 헤쳐
버려야 살겠습니다.

38선에 담이 막히기 전에 벌써 마음과 마음에는 담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총, 조선총을 마주 겨누고 서기 전
부터 마음과 마음의 양칼을 들고 서로 심장을 겨누고 있
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온 백성입니까?

서럽도록 불쌍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그 응졸한 왜놈의 칼자루가 진저리나도록 무
서웠는데, 또 이렇게 허리가 끊어졌으니 이 슬픔을 어이
합니까? 마음과 마음의 담을 털어버려야 살겠습니다.
사상과 사상의 장벽은 허무러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사상도, 주의도 아닌 것인데 이
렇게 악착스럽게 고질이 된 것입니다. 저 하늘 별빛아
래에는 38선을 넘어 기러기가 울며 옵니다.

하도 기막힌 소식이기애 울음에 입이 막혀 끝내 말을
못하고 갑니다. 심장을 찢어 놓을 사연을 무슨 재미애
이야기 할 것입니까? 오늘 하느님은 오히려 지치도록
피곤하였어도 월 칠상은 여기 있는데, 통일을 그리는 내
마음의 서름을 담을 그릇은 없습니다.

하느님이시여.....

불쌍한 우리 겨레들에게 통일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주십시오.

저기 저 북쪽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핏줄기를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그 기름이 흐르도록 아름다운 강토를 밟아보게 해 주
십시오.....

(전주시 교동 1가 132-4)

* 이 주간의 성경 *

- 2(월) 독서 (에베소서 1: 3-14, 성서 P.437)
복음 (마 태 오 8: 18-22, 성서 P. 17)
- 3(화) ※ 성 토마 사도.
독서 (에베소서 2: 19-22, 성서 P.440)
복음 (요 한 20: 24-29, 성서 P.260)
- 4(수) 독서 (에베소서 1: 15-23, 성서 P.438)
복음 (마 태 오 8: 28-34, 성서 P. 17)

- 5(목) ◎ 복자 안드레아 김 대건 사제 순교
독서 (에베소서 4: 1-6, 성서 P.441)
복음 (마 태 오 9: 11-8, 성서 P. 18)
- 6(금) 독서 (에베소서 4: 17-24, 성서 P.442)
복음 (마 태 오 9: 9-13, 성서 P. 18)
- 7(토) 독서 (에베소서 4: 25-32, 성서 P.443)
복음 (마 태 오 9: 14-17, 성서 P. 19)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3498)

- 3일 (화) 성경교실 (8시)
 - 4일 (수) Recreation, 다함께 노래부르기 (8시)
 - 7일 (토) Situational English (5-6시, 휴게실)
 - 8일 (일) 음악감상 (8시, 휴게실)
- ※ 새로운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 문화교실 그 전과 같이 계속합니다.

- 불어: 목요일 8시
- 영어: 금요일 8시
- 독어: 화, 수, 금 5시 6시

※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대 ※

신 우 라 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2212 ☎7071)
김 병 구(빈첸차오)

* 축 발전 *

동남사프

{ T V
냉장고
선종기

전주대리점

전 화 ☎ 8121

여 요 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 1. 교황 주일 (7월 1일)
교황님을 위한 특별 기도와 헌금(신자뿐 아니라 성직자와 수도자도)을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합시다.
- 2. 서품식 (7월 3일 <화> 오전 11시, 중앙성당)
사제품을 받으시는 이재후(이리), 부제품을 받으시는 박중근(중앙), 서석구(장계), 시종직(7명), 독서직(6명)을 받으시는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3. 신부님 인사 이동 (6월 27일자)
김병엽(신태인)→남원 겸 순창 주임신부 안용기(고산)→신태인 주임신부
이재후(새신부)→삼례 보좌로 고산 주제
- 4. 전주지구 학생회 제4차 봉사활동
학생 회원들은 다음 주일 5시반까지 복자성당 앞에 비를 가지고 모임시다.
- 5. 홍보에 대한 글짓기 (원고 마감 7월 13일로 연기)
(1) 일반부, 부녀부, 고등부 (200자 원고지 5매에서 10매의 작문)
① 인간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송 (텔레비전 또는 신문)프로그램
② 연속드라마 (대중가요, 연재소설 또는 방송 교양프로)가 정신생활에 주는 영향
③ 인간개발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
④ 정신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
(2) 중등부, 초등부 (200자원고지 3매 내외의 감상문)
“나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던 방송 (텔레비전 포함)프로그램
(예 ; 여로, 손오공, 어린이시간, 장수 무대, 뽀빠이 대행진 등등)

(소) (식)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진 (전화 3874) 사도 회장 김종준

- 1. 후보 축일 기념 행사 (오늘 오전 10시부터)
① 미사-오전 10시 (해성학교 교정)
② 가장행렬-11시
③ 경기시작-12시
※ 우천시에는 연기함
※ 전교우, 특히 외곽 교우 가족 전원의 참석바람
※ 도시락은 자자 지참하시기 바람
- 2. 푸리아 릴레회 (다음 주일 오후 2시)
- 3. 성심 부녀회 릴레회 (7월 6일 <금> 어머니 미사후)
- 4. 교황주일 특별 헌금 (오늘)
□ 애령회 특별 후원비 (김후영 봉헌) 5,000원
월남 돕기 헌금 6,266원
지난 주일 봉헌금 30,33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전화 7032) 사도 회장 이태영

- 1. 재속 형제회 릴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학생회 릴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 3. 애령회 간부 릴레회 (7월 4일 <수> 12시)
- 4. 신용 조합 릴레회 (다음주일, 경품놀이 있음)
- 5. 교황 주일 특별 기도와 헌금(오늘)
□ 월남 돕기 헌금 995원
지난 주일 봉헌금 12,67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전화 8082) 사도 회장 송영기

- 1. 월·수·금요일 새벽 미사는 오전 6시
지난 주에 발표한 미사시간을 정정합니다.
- 2. 어린이 교리반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반)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보내 주십시오
- 3. 신용조합 임원회 (7월 7일 <토>)
- 4. 푸른 양지회 임시총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 5. 교무금 배가 운동에 협조합시다
- 6. 교황 주일 특별 헌금 (오늘)
□ 월남 돕기 헌금 2,140원
지난 주일 봉헌금 4,796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의 어머니님 강 아나다시아 선종하셨던 날, 교형 자매 여러 어른님들의 정성어린 기도와 따뜻한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지면을 빌어 우선 인사드립니다. 김후영 아뢰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전화 5238)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릴레회 (오늘 저녁 미사후)
- 2. 프란치스코 형제회 릴레회 (오늘 오후 1시반, 노송동)
- 3. 교무금을 7월중에 완납합시다
- 4. 사제양성 후원금을 약속일에 반드시 납부합시다
- 5. 유아 세례 (금주 화요일 오전 10시)
- 6. 9월에 영세식 (준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 7. 본당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7월부터 주일미사와 매일 미사뿐 아니라 교백성사까지 본당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신부님의 건강에 모든 교우들의 관심 아끼지 맙시다
- 8. 성당 청소애 협조합시다 (매주 월요일 10시)
- 9. 자신과 가정의 속죄를 위해 정성껏 성미를 바칩시다
- 10. 주일 봉헌금을 정성껏 바칩시다
□ 지난 주일 성미 3말 2되 (누계 160말 8되 5홉)
월남 돕기 헌금 3,0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11,888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전화 2276) 사도 회장 육낙철

- 1. 사도회 릴레회 (오늘 밤 미사후)
- 2. 자모회 릴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 3. 교리교사 회합 (오늘 오후 3시, 회의실)
- 4. 중·고등학교 교리 (오늘 공식 미사후)
- 5. 6월 결산 보고 잔액 (13,390원)
① 수입 (145,741원)-지출 (137,034원)
② 교구비 미납액이 아직도 27,000원(금월 3만원 납부)
● 애도의 뜻을 포함합니다.
김 베드로(병욱)씨 6월 27일 선종
□ 지난 주일 봉헌금 12,04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전화 3222) 사도 회장 송영선

- 1. 사도회 릴레회 (오늘 밤 미사후, 사제관)
구역회장님들의 빠짐없는 출석을 특히 부탁드립니다
- 2. 첫 영성체 교리반(매일 오후 5시)
- 3. 유아 세례 (오늘 공식 미사후-매일 첫 주일)
- 4. 조합원은 신용조합 통장 대조 바람 (7월 2일까지)
□ 월남 돕기 헌금 8,117원
지난 주일 봉헌금 28,478원, 감사합니다.